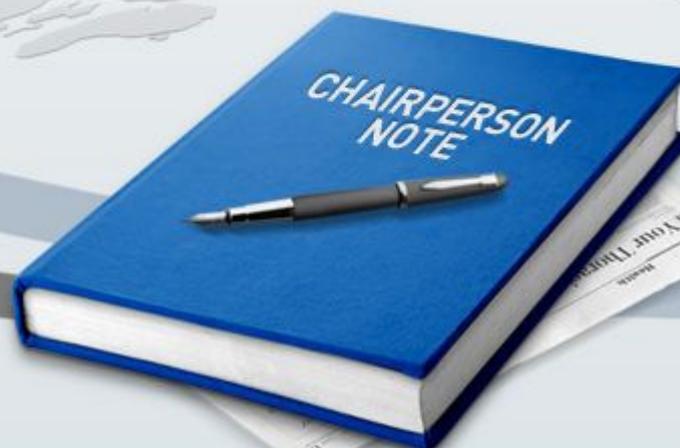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중국 경제 회복세 가속
 -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 경영 노트
 - 새 리더의 안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사회 트렌드
 - 4050, 문화에 눈뜨다
- 저널 브리프
 - 2020년 7대 메가트렌드
- 洗心錄
 - 사실로 믿게 되는 착각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경제 회복세 가속

- 지난 2012년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7.9%를 기록, 지난 2010년 4/4분기 이후 8분기 만에 성장률이 상승세로 반전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지난 2010년 4/4분기 9.8%에서 2012년 3/4분기 7.4%까지 7분기 연속 하락한 후 상승세로 전환
 - 연간 경제성장률 : 2012년 7.9% 성장하여 IMF(2012.10), IB(2013.1) 등에서 전망한 7.7%를 소폭 상회
- 최근 중국경제는 내·외수 동반 회복 가속
 - 내수 경기 호조 : 2012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3/4분기 14.1%보다 0.3%p 높은 14.4%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했을 뿐 아니라, 고정자산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
 - 외수 회복 가속 : 수출증가율도 2012년 4/4분기에 9.4%를 기록, 동년 3/4분기 4.5%를 크게 상회
- 2013년 중국경제는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정책 노력으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 2012년 12월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 물가는 내수 소비와 생산 부진, 원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 생산자물가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이 하락한 가운데 건설경기 회복지연으로 1차금속제품 가격도 내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 수출물가 :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2% 내려 32개월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
 - 수입물가 : 유가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컴퓨터, 통신장비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8.8% 하락
- 최근 생산자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 향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새 리더의 안착을 위한 핵심 포인트1)

-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리더가 오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마련인데, 준비되지 않은 변화의 추구는 저항과 갈등을 양산
 - 과거의 관행을 무조건 구약으로 치부할 경우, 기존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직원 간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새로 부임한 리더가 초기에 조직에 안착하고 변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가 필요

< 새 리더의 안착 위한 핵심 포인트 >

내 용	
자신감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리더들이 자신이 과대평가되어 승진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림 • 이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리더들이 많음 • 자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승진해서 조직에 부임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필요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부임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 •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초심자처럼 호기심을 갖고 부하직원이나 고객에게 용기 있게 묻고 경청하여 빠르게 파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와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손자병법의 ‘上下同愆者勝’,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가능 •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혹은 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영웅적 리더십은 구시대적인 발상 • 직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이끌어내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며 조정과 통합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의 진정한 역할
핵심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는 혼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핵심적인 팔로어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이들과 수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어느 정도는 수평적이고 동지적인 관점에서의 관계 형성이 중요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는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리더십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리더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①솔직한 대화 ②상대방 존중 ③투명한 행동 ④약속 및 책임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1) ‘새로 부임한 리더, 원맨쇼 하면 저항만 생긴다’(조선일보, 2013.01.09)와 ‘자신감 있어야 하지만 경청하고 파악부터...핵심 팔로어 만들어야’(조선일보, 2013.01.09)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4050, 문화에 눈뜨다²⁾

- **지난해 대선 급부상한 4050세대가 문화계에서도 ‘중년의 힘’을 보여주고 있음**
 -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늘면서 이들이 문화계 ‘신(新) 티켓 파워’로 자리잡고 있음
 - 잠재적 문화소비층인 이들은 그간 쌓아온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내재된 문화 감수성을 폭발시키며 영화는 물론 공연, 출판 등 문화 전반에 ‘중년의 힘’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음

-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는 부문은 영화**
 - 2002년 40대 관객 예매율은 3.4%를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011년 22.1%, 2012년 25.8%)
 - 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레미제라블’의 40대 이상 관객 예매율은 39%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음

- **도서나 공연시장에서도 중년층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40대가 전년 대비 2.4%, 50대가 전년 대비 0.9% 증가(이와 반대로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1.1%, 0.5% 감소함)
 - 공연시장에서는 특히 중년층 남성의 활약이 돋보였음.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의 분석에 따르면, 40대 남성 관객수는 2011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50대 남성관객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

- **문화계는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4050세대의 약진을 보면서 이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작품이나 아이템이 나올 경우 언제나 흥행 폭발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젊은 시절 정치적으로는 암울했지만 그들 나름의 대학 문화와 청년문화를 꽃피웠던 4050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를 갖고 안정된 문화 소비를 이어가면서 그 때 그 시절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

2) ‘4050 문화에 눈뜨다’(서울경제, 2013.1.21)를 요약 정리함

□ 2020년 7대 메가트렌드3)

■ 글로벌컨설팅기업 베인앤컴퍼니는 2020년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할 7대 트렌드를 발표

① 소프트 이노베이션 전성시대(Everything the same, but nicer)

- 기존의 혁신전략, 저가전략 등과 차별화된 소프트 이노베이션(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프리미엄전략)이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부상

②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시장 확대(Old infrastructure, new investments)

- 선진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노후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교체 및 신규 수요 발생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

③ 기초 자원 가치 부상(Growing output of primary inputs)

-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는 옥수수, 세일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물 등 기초 자원들이 자체 수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

④ 2차 정보화 혁명 도래(Prepping for the next big thing)

- 나노 기술은 질병 치료, 컴퓨터 연산 능력 확대,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에너지 생산과 저장 기술, 유전체학의 발전 등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새로운 정보화 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⑤ 국방비 지출 확대(Militarization following industrializat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가, 중동·아프리카에서 테러·무장단체 등의 비정규전 증가로 각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⑥ 첨단 의료서비스·건강 산업 팽창(Keeping the wealthy healthy)

- 노령인구 증가 및 비만·당뇨 등 만성 질환의 급증 등으로 국가 및 개인의 건강관리 비용 지출이 증가

⑦ 신 중산층 증가(The next billion consumers)

-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연간 소득 5,000달러가 넘는 중산층이 향후 약 13억 명 증가

3) ‘같은 제품을 더 좋게… 소프트 이노베이션이 5조달러 시장 연다’(조선비즈, 2012.12.15)
참조

□ 사실로 믿게 되는 착각들

아돌프 히틀러는 언제 태어났을까?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아돌프 히틀러는 1892년에 태어났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7년에 태어났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 1892년일까, 아니면 1887년일까, 아쉽지만 두 문장 모두 오답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을 믿는 경향이 강했다. 비슷한 두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이 볼드체로 좀 더 강조되어 사람들이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명확히 대조되는 문장에 대해 사람들은 강조된 사실을 보다 쉽게 믿는다는 점이다. 컬러도 마찬가지다. 녹색이나 하늘색 같은 중간 색조보다 파랑이나 빨강 같은 원색을 사용하면 훨씬 더 신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착각은 강조된 문장이나 컬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단어보다는 익숙한 쉬운 단어를 쉽게 믿는다. 예를 들어 두 증권사 보고서에 기초해 터키 회사들의 향후 전망을 평가하는 실험이 있었다. 한 보고서는 발음하기 쉬운 증권사(아탄)가 작성한 것이었고, 다른 보고서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증권사(타후트)의 것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 중간 서로 상이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은 두 보고서의 내용을 조합하는 것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증권사 이름이 어려운 타후트 보고서보다는 이름이 쉬운 아탄의 보고서를 좀 더 신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강조되거나 익숙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는 경향을 보인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그로 인해 당신을 치명적인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다. 문제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인이 글자체나 익숙함일 수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익숙함에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나는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아인슈타인 (1879~1955) : 독일 태생의 美 물리학자, 1921년 노벨상 수상